



하루썸 소도시 여행

전주·군산·통영·진주를
더 알차고 즐겁게 여행하기

전북교육문화회관

박명예 지음



EM213248



#명소 #맛집 #전주한옥마을

#경암동 철길마을 #동피랑 #통영케이블카 #매물도 #진주유등축제

디스커버리미디어

하루쯤 소도시 여행

전주·군산·통영·진주를 더 알차고 즐겁게 여행하기

저자 박명예

초판 1쇄 발행일 2016년 5월 6일

기획 및 발행 유명종

편집 이지혜

디자인 이다혜

조판 신우인쇄

용지 화인페이퍼

인쇄 신우인쇄

발행처 디스커버리미디어

출판등록 제 300-2010-44(2004. 02. 1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431호

전화 02-587-5558

팩스 02-588-5558

© 박명예, 디스커버리미디어, 2016


ISBN 978-89-969116-9-2 0398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자와 디스커버리미디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을 제공해주신 홍천수, 김용순, 김동국, 진미금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작가의 말

 전주 Jeonju

전주 여행 지도 12
전주 미리알기 14

전주 핵심 명소

한옥마을 18
전동성당 20
경기전 22
남부시장과 하늘정원 청년몰 24
풍남문 26
전주 막걸리 골목과 가맥집 28
오목대 30
이목대와 자만벽화마을 31
전주향교 32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장현식 고택 34
전주공예품전시관 36
전통술박물관 37
전주소리문화관 38

최명희문학관 39
교동아트미술관 40
한방문화센터 41
전주부채문화관 42
풍패지관과 객사길 44
영화의 거리 45
치명자산성지 46
국립전주박물관 48
덕진공원 49
전주한지박물관 50
전주수목원 51
한벽당 52

전주의 소문난 맛집 53
전주의 멋진 카페 70
전주의 아늑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75

 군산 Gunsan

군산 여행 지도 82
군산 미리알기 84

군산 핵심 명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88
옛 군산세관 90
군산근대미술관과 미즈카페 91
군산근대건축관 92
진포해양테마공원 94
부잔교 95
이성당 제과점 96
초원사진관 97
일본식 가옥거리 98
동국사 99

신흥동 일본식 가옥 100
경암동 철길 마을 102
월명공원 104
해망굴 105
채만식문학관 106
금강철새조망대 107
임피역 108
이영춘가옥 110
새만금방조제 112
선유도 114

군산의 소문난 맛집 116
군산의 멋진 카페와 숙소 126

통영 Tongyeong

통영 여행 지도 134

통영 미리알기 136

통영 시내 명소

동피랑 140

중앙시장 142

삼도수군통제영과 세병관 144

서호시장 146

총렬사 148

서피랑 149

통영운하와 해저터널 150

청마문학관 152

남망산조각공원 154

이순신공원 155

미륵도 핵심 명소

미륵산과 통영케이블카 156

산양일주도로 158

전혁림미술관 160

김춘수유품전시관 162

통영전통공예관 163

통영국제음악당과 윤이상기념공원 164

미래사와 편백나무숲 166

달아공원과 당포성지 168

통영수산과학관 170

박경리기념관 171

통영의 명품 섬7

한산도 172

비진도 174

매물도 176

장사도 178

연화도 180

욕지도 182

사랑도 184

통영의 소문난 맛집 186

통영의 멋진 카페와 숙소 198

진주 Jinju

진주 여행 지도 208

진주 미리알기 210

진주 핵심 명소

진주성 214

촉석루와 의암 216

국립진주박물관 218

남강유등축제 220

인사동 골동품 거리 222

진양호 223

진주 문산성당 224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226

진주레일바이크 227

사천녹차단지과 다솔사 228

진주의 소문난 맛집 230

진주의 멋진 카페와 숙소 235

04 남부시장과 하늘정원 청년몰 청년들의 발랄함을 즐기자

남부시장은 우리나라 전통 시장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한때 호남은 물론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장이었다. 조선 후기부터 공주, 대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시장, 혹은 평양시장까지 포함하여 4대 시장으로 불렸다. 풍남문과 전주천 사이에 있다. 한옥마을 남쪽을 감싸며 흐르는 전주천을 산책하다 보면 천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바깥시장남밖시장이 보인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 해산물이 사람의 발길을 붙잡는다. 안쪽시장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전통 시장이다. 한복 상점, 곡물 가게, 약령시, 생활용품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안쪽시장에는 콩나물국밥, 피순대 등 이름난 맛집이 있어 늘 사람들로 붐빈다. 1층 상인회 사무실 옆에 있는 남부시장 갤러리에 들어와 살아가는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자.



Information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로2길 63
전화 063-284-1344



2층에는 독특한 쇼핑몰이 있다.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이 있는 그런 쇼핑몰이 아니다. 오래된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꾸린 남부시장 청년몰이다. 젊은 장사꾼들의 발칙한 아이디어가,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는 청년몰 창업자들의 열정이, 특별한 것을 찾는 당신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가게마다 붙어 있는 위트가 넘치는 캘리그래피는 웃음을 터트리게 한다. '오빠가 백은 못 사줘도 주머니는 사준다.'고 써 붙인 가게는 전통 주머니를 현대적으로 양증맞게 재해석한 곳이다. '소소한 무역상'이라고 간판을 내건 가게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작은 소품들을 판다. 어떤 집은 어릴 적 어른들에게 혼나면서 사먹던 불량식품만 모아서 버젓이 팔고 있다. 인형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간 '오메달다'는 예쁜 인형 모양으로 사탕을 만드는 캔디샵이다. 둘러보다가 뜻밖에 만난 작은 갤러리 '뜻밖의 조각가'는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조해준의 갤러리이다. '청년몰도 식후경'이라고 부르짖는 이곳에는 제법 이름값을 하는 맛집도 여럿 성업중이다. '순자씨 보리밥' 같은 토속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볶음밥 전문점이 젊은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수제 양갱, 요거트 같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가게도 있다. 또 떡으로 만든 와플로 간단한 요기를 할 수도 있다. 청춘식당에서는 낫술도 환영한다고 하니 술 한 잔 하면서 전주 여행을 즐겨보자.



06 전주 막걸리 골목과 가맥집 전주의 낭만을 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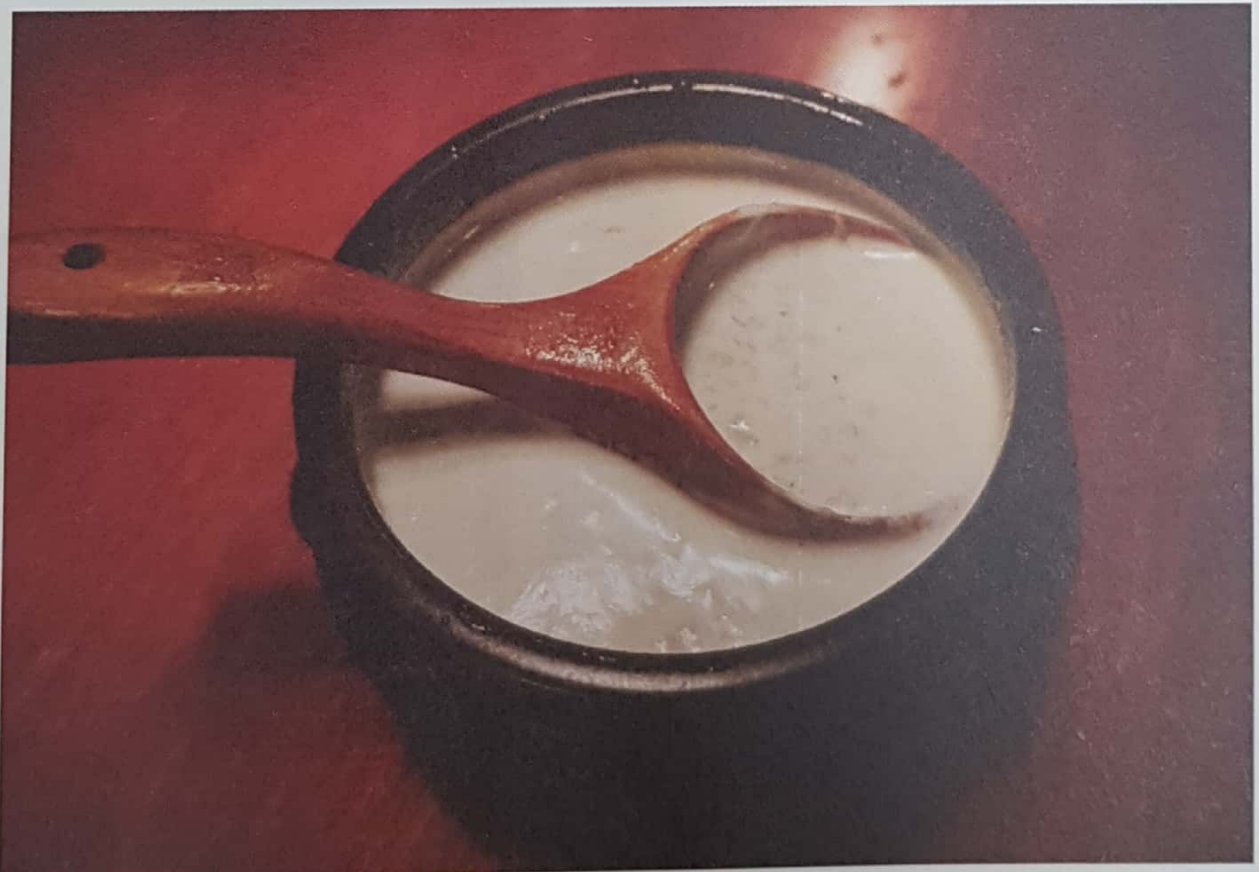
예향과 고도답게 전주의 막걸리 사랑은 대단하다. 비오는 날 파전, 김치전 앞에 놓고 들이키는 풍경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겹다. 막걸리는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 좋고, 식사를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요기가 되니 더 좋다. 낮에 한옥마을을 여행했다면 저녁엔 막걸리 골목에서 전주의 낭만을 즐겨보자. 요즘 들어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진 퓨전 막걸리가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지만 전주 막걸리 골목은 우리의 삶을 위로해준 옛날 그대로의 맛으로 여행자를 불러들인다. 전주의 막걸리 골목은 삼천동, 서신동, 경원동 등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전주의 막걸리 주문 방법은 아주 독특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술과 안주를 각각 주문하지만 이곳은 술값에 안주값이 포함되어 있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스무 가지가 넘는 안주가 푸짐하게 나온다. 한 주전자를 더 주문하면 새로운 안주가 다시 나온다. 새로 술을 시킬수록 비장의 안주가 쏟아져 나온다. 인기를 타고 몇 년 동안 우후죽순 많은 가게가 생겼으니 전통이 있는 막걸리 집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삼천동 용진집, 서신동 옛촌막걸리처럼 인기 있는 집은 초저녁부터 장사진을 이룬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집으로 데려다주기도 한다. 막걸리 두어 주전자 비워질 때쯤이면 옆 테이블 손님과 동행이 된다. 어디서 왔느냐? 뭐하는 사람들이냐?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면 생면부지의 사람도 이웃처럼 정다워진다. 이런 게 전주 막걸리 골목의 매력이다.

전주에만 있는 독특한 술 문화인 가맥가게 맥주도 꼭 즐겨보자. 밤이 이슬해지면 전일갑오, 영동가맥 같은 집에서 가볍게 입가심하는 것을 잊지 말자. 슈퍼 냉장고에서 꺼내다 먹는 속이 아리도록 시원한 맥주와 매콤달달한 소스에 찍어먹는 황태포는 전주의 밤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Information

주소 전북 전주시 삼천동, 서신동, 경원동, 효자동, 평화동 일대



12 전통술박물관 술도 빚고 풍류도 체험하자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맞담배질은 못해도 술은 웃어른에게 배우는 것을 장려하였다. 접빈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탓에 술을 빚는 일은 아녀자들의 중요한 가사일 중 하나였다. 지방에 따라, 가문에 따라 가양주라 하여 술을 빚는 재료와 방법을 달리하여 각양각색의 술을 빚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우리 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술 관련 유물을 상설 전시하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흔히 접하기 힘든 술 빚는 도구, 잔, 저장용기 같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단계별 전문 강좌를 운영하고, **술 빚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달큰하고 향긋한 모주를 걸러 가져갈 수도 있다.** 술꾼의 품격을 원한다면 다양한 술을 시음해 보고 품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술 예법을 배우고 선조들의 풍류를 체험하며 신명과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을 성싶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술 명인이나 무형문화재들이 재현한 전통술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품관에서는 여러 가지 전통술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르윈 뒤편에 있다.




Information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전화 063-287-6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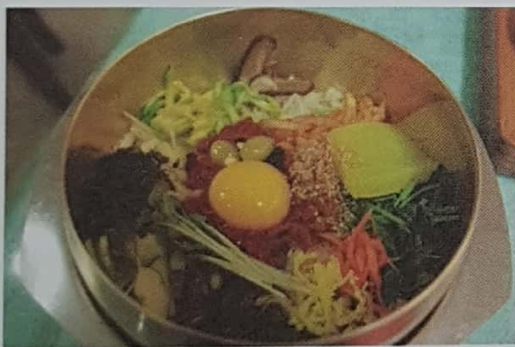


 성미당 비빔밥


50년 전통의 전주비빔밥 전문 식당이다. 2012년 TV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탔다. 밥 위에 나물 고명을 얹어 나오는 일반 비빔밥과 달리 밥을 유기그릇에 넣어 고추장양념에 비빈 뒤 그 위에 나물과 고명을 얹어 불에 살짝 지진 후 내놓는다. 부모님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방식이다. 입에 넣는 순간 고추장에 비빈 밥과 고소한 나물의 조화가 제대로 느껴진다. 고추장, 참기름, 간장 같은 양념은 모두 직접 만들어서 쓴다. 이 집의 육회 비빔밥은 전라북도의 NO.1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비빔밥 외에 떡국, 전복죽, 해물파전 같은 메뉴도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이 좋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9
 전화 063-287-8800
 영업시간 10:00~21:30(연중무휴)
 예산 1~3만원
 주차 가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
 전화 063-284-0982 영업시간 10:00~20:30
 예산 1만2천원~2만5천원 주차 가능

 가족회관 비빔밥

점심시간이 되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각에 갔는데도 식당은 손님으로 장사진이다. 40년 동안 비빔밥만 팔아 온 전문식당이다. 비빔밥 기능보유자가 만든다고 한다. 독특하게 쟁반에 1인분씩 세팅해서 나온다. 사골국물로 지었다는 밥알이 탱글탱글하다. 따끈하게 덥힌 유기에 담긴 음식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갓은 나물과 어우러진 밥알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비빔밥과 함께 나오는 15가지나 되는 반찬에 손님들이 놀란다. 한상 가득 차려진 식탁이 마치 한정식을 방불케 한다. 가지 수도 풍성하지만 맛도 정갈하다. 예약하면 가족회관 정식과 백반도 즐길 수 있다.

🍴 감기회관 비빔밥

30년이 넘는 전주비빔밥 전문 식당이다. 토속적인 인테리어가 푸근한 느낌을 준다. 사골로 지은 찰진 밥과 통통한 콩나물과 갓은 나물, 육회를 얹어 따끈하게 덥혀 나온다. 유기에 담긴 비빔밥에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싱싱한 육회는 보기에 도 풍성하고 먹음직스럽다. 밥은 감칠맛이 나고, 육회는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 시원한 콩나물 국물이 비빔밥과 잘 어울린다. 불낙전골과 갈비전골도 많이 찾는 메뉴이다. 비빔밥만큼이나 인기 있는 갑기고추장을 따로 구매할 수 있다. 전주한지박물관 가는 길목에 있다. 비빔밥으로 전주의 맛을 느끼고 박물관에서 전통 한지 체험을 해보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50
전화 063-212-5766
영업시간 10:00~22:00(연중무휴)
예산 1만2천원~2만원
주차 가능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25
전화 063-272-9229
영업시간 11:00~21:00(연중무휴)
예산 1만1천원~2만5천원
주차 가능

🍴 한국관 비빔밥

전주비빔밥 전문점으로 4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사골을 우려 지은 콩나물밥에 갓가지 나물과 고명을 얹어 나온다. 비빔밥의 주요 재료인 고추장은 인삼, 더덕, 매실, 과일 등 10여 가지를 넣어서 직접 담근다. 음식의 주재료와 밥을 담는 그릇에 따라 늦그릇 비빔밥, 돌그릇 비빔밥, 인삼 비빔밥 등 비빔밥 종류가 다양하다. 질박한 그릇에 담긴 깔끔한 반찬도 만족스럽다. 파전이나 불고기, 육회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사이드 메뉴이다. 수정과나 석류차를 후식으로 제공한다.

🍴 또 다른 비빔밥 전문점

종로회관 063-288-4578 고궁 063-251-3211
담 063-228-3711 한국집 063-284-2224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63
전화 063-282-7214
영업시간 06:00~14:00(명절 휴무)
예산 6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 현대옥 콩나물국밥

삼백집, 뽕이집과 더불어 전주 3대 콩나물국밥집으로 꼽힌다. 남부시장에서 30년의 전통을 지켜온 현대옥은 대표적인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 전문점이다. 이제는 은퇴한 1세대 창업주에 이어 2세대 경영자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뚝배기에 식은 밥과 콩나물을 넣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말아 나오는 방식이다. 얼큰한 국밥에 들어있는 데친 오징어가 쫄깃하며 시원 맛을 낸다. 데친 오징어를 따로 주문해서 같이 먹어도 좋다. 현대옥은 명성에 힘입어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점을 냈다. 남부시장식 국밥 외에도 끓여 나오는 국밥과 현대옥 정찬 등 다양한 콩나물 국밥을 즐길 수 있다.

🍴 삼백집 콩나물국밥

50년이 넘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콩나물국밥 전문점이다. 창업주인 고 이봉순 할머니는 육재이 할머니로 유명하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대차게 육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온다.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하루에 삼백 그릇만 팔았다고 해서 삼백집이란 상호가 붙여졌다.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탄 집이다. 밥과 콩나물, 김치, 양념 등을 뚝배기에 넣고 끓인 후 생달걀을 얹어 내놓는다. 뜨끈하고 진한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이 집의 맛내기 김치는 콩나물국밥의 맛을 완성하는 별미이다. 삼백집식 선짓국인 선지온반과 삼백집만의 육개장인 양지온반도 인기가 높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전화 063-284-2227
영업시간 24시간(연중무휴)
예산 6~7천원
주차 가능

🍴 뽕이집 콩나물국밥

“365일 뽕이집의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인상적이다. 동문거리를 지나다 보면 뽕이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높은 탑처럼 쌓여 있는 수란 그릇이 이 집의 인기를 한눈에 보여준다. 수란은 국밥 국물과 김가루를 넣어 먹어도 좋고, 국밥에 넣고 섞어 먹으면 맛이 더없이 고소하다. 뽕이집 국밥은 펄펄 끓이지 않아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다. 밥과 콩나물은 계속 리필해준다. 한약을 넣어 다린 모주를 함께 곁들여도 좋다. 식당을 나올 때는 후식으로 준비해 놓은 튀밥 한줌도 잊지 말자. 주의! 튀밥을 집을 때는 두 손 사용 금지!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8
전화 063-287-6980
영업시간 24시간(연중무휴)
예산 6천원
주차 가능

🍴 또 다른 콩나물국밥 전문점

한일관 063-226-1569 삼일관 063-284-8964
풍전콩나물국 063-231-0730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48-1
전화 063-284-6932
영업시간 10:00~21:00(명절 당일 휴무)
예산 7천원
주차 가능

🍴 한국식당 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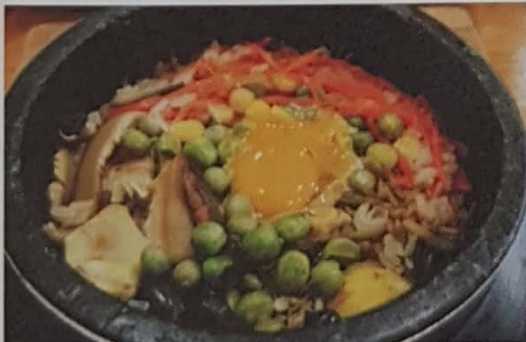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백반집이다.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외관이 특징이다. 전주의 맛을 경제적으로 즐기려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행 중 기름진 음식에 지쳤다면 전주의 가정식백반으로 집밥의 힘을 느껴보자. 청국장, 김치찌개, 계란찜, 잡채, 조림 반찬, 나물 등 20여가지의 반찬이 알차게 깔린다. 홍어탕과 소불고기 같은 단품 메뉴도 있으니 곁들여서 주문하면 백반을 더 맛나게 즐길 수 있다. 반찬이 모두 소진되면 영업을 종료한다.

🍴 광장식당 백반

전주의 오래된 가정식백반 전문점이다. 단돈 7천 원이면 푸짐한 백반 한상을 떡 벌어지게 먹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백반에 곁들여 나오는 반찬만 대략 20가지이다. 다양한 나물, 독배기 계란찜, 찌개, 편육, 생선, 장아찌류 등 얼마가 정성으로 지은 집밥이 부럽지 않다.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이 좋다. 칼칼한 김치찌개에 계란찜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맛이 그만이다. 소주나 맥주 한 잔 해도 안주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반찬이 풍부하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7
전화 063-282-3641
영업시간 11:30~21:00(일·명절 휴무)
예산 7천원
주차 가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6
전화 063-288-3174
영업시간 10:30~21:00
예산 1~1만5천원 주차 가능

🍴 반야 돌솥밥

반야(飯野)란 이름이 참 좋다. 들에서 나는 것들로 밥을 짓는다는 뜻이다. 35년 전 국내 최초로 돌솥밥을 개발한 식당이다. 한약을 우린 물에 쌀, 잣, 밤, 은행, 우엉, 버섯을 넣어 고슬고슬한 밥을 짓는다. 밥맛이 아주 좋다. 밥에 올린 주재료에 따라 소고기 돌솥밥, 송이 돌솥밥, 인삼 돌솥밥이 있다. 그래도 이 집의 가장 인기 메뉴는 기본 돌솥밥인 반야 돌솥밥이다. 이 집만의 양념장으로 비벼 먹는데 고슬고슬한 밥알과 고소한 잣 알갱이가 풍미를 더한다. 싱싱한 겉절이를 얹어 먹는 비빔밥도 푸짐하고 맛있지만, 다 먹은 뒤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 누룽지 맛이 일미이다. 석쇠에 구운 도라지구이와 모주 한 잔 곁들이는 것도 이 집만의 별미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2길
(전동3가 2-198)

전화 063-232-5006

영업시간 24시간

예산 6천원~2만5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 조점례 남문피순대 피순대와 순대국밥

남부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집 중 손꼽히는 식당이다. 긴 줄을 서 있는 손님들 모습이 남부시장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돼지 창자 속에 고기와 채소, 선지를 넣고 버무려 피순대를 찌낸다. 당면이나 찹쌀을 넣은 순대처럼 찰진 맛은 적지만 맛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순대 국밥의 육수는 맑고 깔끔하다. 돼지고기 사골을 푹고아 만드는데 냄새가 전혀 없고 다데기를 넣어 칼칼하다. 싱겁다고 느끼면 새우젓을 살짝 넣으면 된다. 함께 나온 부추겉절이를 듬뿍 넣어서 먹으면 풍미가 더욱 좋다. 통통하고 큼직한 피순대를 포장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머릿고기, 암뽕(암돼지의 자궁)도 많이 팔리는 메뉴다.

🍴 풍남순대국밥 피순대와 순대국밥

남부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 골목에서 남문 피순대와 쌍벽을 이루는 맛집이다. 치댄 고기와 채소를 신선한 돼지피로 버무린 이 집의 순대는 특유의 고기 냄새가 적고 맛이 구수하다. 뜨끈뜨끈한 국물에 머리고기와 순대가 푸짐하게 들어간 순대국밥도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부추를 듬뿍 얹은 순대국밥에 소주한잔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순대국밥과 더불어 암뽕순대도 특별한 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암뽕은 암돼지의 새끼보자궁이다. 여기에 피순대를 버무려 찌낸 것이 암뽕순대이다. 전주만의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63

전화 063-282-4289

영업시간 08:00~21:00(명절 당일 휴무)

예산 5천원~2만5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 금암피순대 피순대와 순대국밥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다. 길거리 노점에서 시작한 식당으로 전주 사람들이 주저 없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냄새가 없는 담백한 피순대와 내장이 푸짐하게 들어간 순대국밥은 여행 중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육수는 돼지 사골로 끓인 뒤 들깨가루를 넣어 맛이 더욱 진하고 고소하다. 신선한 부추를 넣어 먹으면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이다. 국밥과 함께 암뽕 순대도 인기 메뉴다. 통통한 피순대를 매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별미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0-59

전화 063-272-1394

영업시간 11:00~23:00(연중무휴)

예산 6천원~2만원

주차



🍴 에루화 떡갈비와 냉면

현대식 한옥이 멋스럽다. 조금 거칠게 다져진 돼지고기를 석쇠에 구워 내오는데 돌판에 다시 한 번 구워서 먹는다. 갈비 속에 박힌 쫄깃한 떡이 느끼한 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게 해준다. 샐러드 바에 신선한 야채가 차려져 있어서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 식사로는 밥과 냉면 중 선택할 수 있다.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과 과자가 후식으로 나온다. 돼지떡갈비, 매운떡갈비, 한우갈비탕, 냉면 등이 주 메뉴이다.

주소 한옥마을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25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5길 25

전화 한옥마을점 063-232-8203 본점 063-252-9946

영업시간 11:00~21:30(명절 휴무)

예산 7~9천원

주차 가능

🍴 교동떡갈비 떡갈비와 연잎밥

한옥 건물이 아늑함을 전해준다. 긴 뒷마루에서 차레를 기다리는 손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코에 와 닿는 고소한 떡갈비 냄새가 기대감을 부풀게 한다. 이 집은 떡갈비와 미니비빔밥, 연잎밥, 곤드레밥을 세트로 구성해 놓고 있다. 비교적 저렴하고 푸짐하게 떡갈비를 즐길 수 있다. 초벌구이 한 떡갈비를 불판에 살짝 구워서 먹는다. 오후 3시까지의 런치타임이다. 이 시간에는 값싸게 떡갈비를 먹으려는 손님들이 많이 붐빈다. 후식이 다양해 고르는 재미가 있다. 냉면, 소면, 김치죽, 누룽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0
전화 063-288-2232
영업시간 11:00~21:30(명절 휴무)
예산 6천원~1만7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54-1
전화 063-227-0844
영업시간 10:00~21:00(공휴일 휴무)
예산 12~24만원(4인 기준) 주차 공영주차장

🍴 궁 한정식

한정식으로 맛의 품격을 느껴보는 것도 전주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한정식집 궁은 한옥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2층 한옥이다. 아늑한 정원과 현대식 한옥에서 격조가 느껴진다. 진·선·미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한상차림이 아니라 코스 요리로 나온다. 신선한 샐러드와 고소한 죽으로 시작하여 보기에 맛갈스런 구절판, 톡 쏘는 홍어삼합, 바다의 신선한 향기가 남아 있는 굴무침, 먹음직스런 파전, 임금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드는 신선로 등 메뉴가 끝이 없이 나온다.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쁜 음식이 유기에 가지런히 담겨 나온다. 음식은 하나같이 입에 넣기 아까울 지경이다. 유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이봉주 선생이 제작한 것이다. 궁의 유인자 사장은 궁중요리 전문가 고 황혜성 선생의 제자이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4길 5
전화 063-228-3033
영업시간 12:00~20:00
예산 2~4만원 주차 가능

🍴 전라회관 한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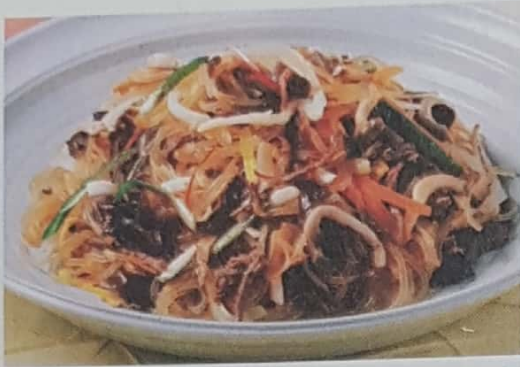
오래된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식당이다. 뒷마루로 올라 장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면 마치 고향집에라도 온 듯 느낌이 아늑하다. 전주에서 60여 년 동안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토속적이며 호들갑스럽지 않은 상차림이 전라도의 손맛을 느끼게 해준다. 전라도 한정식의 기본인 홍어 삼합은 살짝 삭힌 홍어를 야들야들한 수육과 묵은 김치를 곁들여 먹는데 특 쏘는 맛이 알맞아 홍어 초보자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고운 빛깔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밀쌈도 맛있고 짜지 않은 갈비찜은 감칠맛이 그만이다. 간장게장, 냉채, 다양한 나물반찬이 따끈한 탕과 찌개류와 함께 상에 오른다.

🍴 백번집 한정식

전라회관, 수구정과 함께 전주 3대 한정식집으로 불린다. 한옥으로 꾸민 입구가 인상적이다. 미닫이문이 달려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방석만 깔려 있지 식탁이 없다. 한상차림이 상째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전주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40여 가지 음식이 상에 올려져 나온다. 잘 구운 떡갈비, 싱싱한 육회, 정갈한 밀쌈, 칼칼한 홍어탕, 매콤한 낙지볶음, 정성스럽게 부친 각종 전 등 먹기 전에 눈이 먼저 호강한다. 낯선 음식도 주인의 친절한 설명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15
전화 063-286-0100
영업시간 11:30~21:30
예산 10~25만원(4인 기준) 주차 가능





🍴 호남각 한정식

고풍스럽고 널찍한 전통 한옥이 분위기를 돋운다. 실내가 정갈하고 직원들의 한복 복장이 식당의 격조를 느끼게 해준다. 신선로, 탕평채, 갈비찜, 삼합 등 전통 한정식에 청포묵 샐러드, 두부들깨소스 샐러드 같은 퓨전 음식이 조화를 이룬다. 전주비빔밥, 떡갈비정식, 낙지전골 등 단품 메뉴도 좋은 평을 받는다. 맛있는 전주 한정식을 적당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어느 메뉴를 정해도 만족스럽다. 한옥마을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번잡함을 피할 수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67

전화 063-278-8150 영업시간 10:00~22:00

예산 1만원~4만5천원 주차 가능

🍴 베테랑 칼국수 칼국수, 쫄면, 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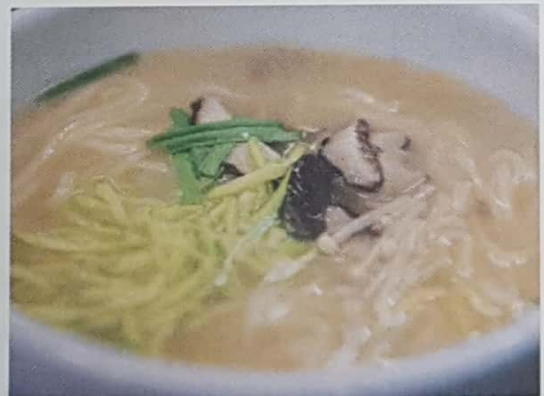
전동성당 옆 성심여고 앞에 있는 오래된 분식점이다. 넓은 주차장까지 완비하고 있는 한옥마을 최강 맛집 중 하나이다. 언제나 건물을 둘러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지나가다가 긴 줄을 보면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지만 푸짐한 비주얼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굵직한 면발에 들깨가루, 고춧가루, 김 가루를 수북이 얹고 나오는데 구수한 국물 맛이 아주 좋다. 쌀쌀한 날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다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 그야말로 대만족이다. 매콤한 쫄면과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만두도 인기 품목이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35

전화 063-285-9898

영업시간 11:00~21:00(명절 휴무)

예산 5~6천원 주차 가능



🍴 한벽집 민물매운탕

한옥마을 옆 전주천변에 오모가리탕 전문 식당 몇 집이 모여 있다. 그 중 한벽집은 70년 전통을 이어 오는 터줏대감이다. 오모가리란 뚝배기를 가리키는 전라도 사투리다. 예부터 전주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오모가리에 끓여 먹었는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원조 할머니는 작고하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맛을 잇고 있다. 쏘가리, 빠가사리, 동자개, 메기 등의 신선한 민물고기와 시래기를 넣고 얼큰하게 끓여내어 국물 맛이 시원하면서도 깊고 칼칼하다. 푸짐하게 차려진 토속적인 밑반찬에 입맛이 절로 돋는다. 수양버들이 늘어진 물가에서 바라보는 전주천의 풍경을 덤으로 즐길 수 있다. 후식으로 주는 구수한 누룽지 한 덩어리도 별미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4
전화 063-284-2736
영업시간 09:00~21:00(명절 휴무)
예산 5~8만원(4인 기준)
주차 가능



🍴 다우랑 수제만두

한옥마을 맛집 중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집이다. 운치 있는 한옥 매장에 개구쟁이 같은 간판이 귀엽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손님들이 태조로를 점령할 듯하다. 얇은 만두피 속에 들어간 통통한 만두소가 먹음직스럽다. 고기, 김치, 새우, 잡채 같은 여러 가지 소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전통 만두도 있지만 만또만두와 또띠아의 만남 같은 퓨전 만두도 인기다. 모양도 색깔도 예쁜 만두를 골고루 먹어보려면 하루 종일 배를 비워 놓아야 한다. 포장 판매하지만 내부 테이블에서 먹을 수도 있다.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 새우만두는 1인당 4개씩만 한정 판매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33
전화 063-285-5000
예산 2~4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 촌놈의 손맛 떡갈비 완자꼬치, 떡갈비바

맛없으면 공짜라는 사훈을 걸고 한옥마을에서 영업하는 완자꼬치 전문점이다. 양념한 떡갈비를 완자로 빚어 꼬치에 꿰어 굽는다.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떡갈비의 식감이 아주 좋다. 소스 맛도 일품이다. 새로 출시된 떡갈비바는 떡갈비 위에 신선한 채소를 토핑해서 웰빙을 쫓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는데 센스 있게 포장해 해줘 들고 다니며 먹기에 불편하지 않다. 한옥마을에만 3개의 점포가 성업 중이다. 문앞에서 있는 완자 인간 완돌이가 손님을 불러 모으는지 식당 앞은 언제나 문전성시다. 완자꼬치와 크림생맥주나 레모네이드 같은 음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콤보 상품도 인기가 높다. 떡갈비완자꼬치 3천5백원, 떡갈비과일꼬치 4천원, 완자콤보와 완맥콤보는 6천원이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23

전화 063-535-5555

예산 4~6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85

전화 063-285-0078

영업시간 10:00~20:00

예산 1~3만원 주차 공영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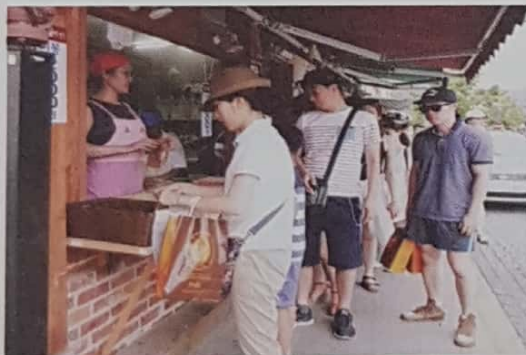
🍴 족떡이네 떡갈비, 떡갈비완자, 매운 족발

한옥마을 향교길에 있다. 한옥마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맛집 가운데 하나이다. 전주의 명품 먹거리 떡갈비뿐만 아니라 매운 족발, 떡갈비완자, 구운 보쌈을 같이 즐길 수 있다. 햄버거 패티 같이 둥글둥글 빚어서 만든 떡갈비에 견과를 살짝 뿌려 나온다. 매콤하고 상큼한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 맛에 반한다. 완자꼬치는 속에 든 오이 맛이 상큼하다. 곁들여 나오는 싱싱한 야채에 싸먹으면 건강한 맛이 느껴진다. 입안이 확 달아오르는 매콤한 매운 족발과 구운 보쌈도 식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떡갈비, 완자, 족발, 보쌈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족떡이정식도 있다. 평일 점심에만 판매하는 점심 특선은 만원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 PNB 풍년제과 수제초코파이

1951년 창업한 전주 토박이 빵집이다. 한옥마을 여행객들이 들고 다니는 오렌지색 쇼핑백이 바로 풍년제과의 것이다. 풍년제과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제 초코파이는 하루 5천개 이상씩 팔려나간다.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된 초코 케이크에 하얀 크림, 견과류를 더해 먹는 식감이 남다르다. 샌베과자와 단팥빵, 머핀류도 많이 판매된다. 경원동 본점과 한옥마을에 2개의 지점이 있다. 익산역, 전주역, 현대백화점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80
전화 063-288-7300 예산 1만원 이내
주차 공영주차장



🍴 모정 과배기

달지 않고 바삭바삭한 과배기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집이다. 긴 긴 행렬을 이루는 모습이 신기해서 덩달아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가게 이름처럼 어머니의 정이 느껴지는 추억의 주전부리이지만 요즘엔 젊은이들이 더 좋아한다.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먹고 나서도 입맛을 다시게 한다. 비교적 오래 보관이 가능해서 대부분 여러 봉지를 사간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75-2
전화 063-236-9993
예산 2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외할머니솜씨 눈꽃빙수와 단팥죽갈비바

시골 한옥에서 외할머니가 만든 팥빙수로 더위를 식힌다면? 생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외할머니솜씨가 딱 이런 곳이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흑임자 팥빙수이다. 얼음 위에 큼직한 떡과 흑임자를 듬뿍 올려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한입 떠 입에 넣으면 첫맛은 시원하고 뒷맛은 더없이 고소하다. 외할머니솜씨에서는 팥빙수 말고도 단팥죽, 단팥녹차아이스크림, 인삼꿀라떼, 궁중쌍화탕 따위를 즐길 수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87

전화 063-232-5804

예산 5~8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츄남 수제 츄로스

한옥마을에 있는 디저트 카페다. 수제 츄로스와 커피,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바로바로 튀겨주는 오리지널 츄로스와 필링 츄로스가 대표 메뉴이다. 크림, 피넛, 블루베리 같은 필링이 들어간 츄로스도 있다. 츄로스만 구입하는 경우는 테이크아웃 판매한다. 카페에서 먹고 싶을 때는 음료를 주문하면 된다.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아늑한 한옥마을이 시야에 가득 펼쳐진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58

전화 063-715-0520

예산 3~4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24
전화 063-285-1110
예산 3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한옥 문꼬지 문어꼬치

한옥마을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전부리가 문어꼬치이다. 미리 삶아 놓은 야들야들한 문어를 석쇠에 꽃은 다음 족석에서 구워준다. 잘 구운 문어 꼬치에 매운맛 소스, 데리야키 소스,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 가시오부시를 듬뿍 올려준다. 거품이 부드러운 크림맥주와 같이 마시면 환상 궁합이다. 최근 들어 여러 집이 성업 중이어서 한옥마을 내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주전부리

길거리야 바के트버거, 063-286-5533 교동고르케 063-283-5555
한옥마을 임실치즈농협 치즈점보를

용진집 막걸리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식당 중 하나이다. 막걸리에는 육덕삼반(六德三反, 유익·음식·원기·화목·화해·웰빙이 6덕이고, 반유한적·반귀족적·반계급적이 3반이다. 이 있다고 주장하는 막걸리집이다. 초저녁에도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스무 가지 남짓한 안주가 푸짐하게 깔린다. 술값에 안주가 포함 되어 있다. 처음 온 손님은 안주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꼬막, 계장무침, 부추전, 콩치구이, 오징어숙회 등 맛깔스럽고 깔끔한 안주가 끝없이 나온다. 막걸리를 추가하면 새로운 안주가 또 나온다. 한두 명이 가면 맛난 안주를 다 맛보기 어렵다. 여럿이 어울려서 가는 게 좋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로 10
전화 063-224-8164
영업시간 16:00~24:00
예산 2만원~3만5천원
주차 가능

홍도주막 막걸리

안도현 시인이 단골로 다니는 술집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막걸리뿐 아니라 안주로 승부하는 집이다. 이 집은 주전자로 주문하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손님이 좋아하는 안주를 따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주문한 안주가 나오기 전에 깔끔한 기본 안주로 김치찌개, 콩치구이, 문어숙회, 채소류가 나온다. 일식집, 횃집 등을 오래 운영한 주인은 다양한 종류의 안주거리를 솜씨 좋게 상에 올린다. 싱싱한 횃감은 물론 낙지볶음, 홍어삼합, 수육 등 술을 부르는 안주가 가득하다. 이 집의 대형 계란말이는 손님들 인기를 독차지 한다.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 집의 흥탁을 좋아했다고 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7-1
전화 063-224-3894
영업시간 11:00~24:00(명절 휴무)
예산 1만5천원~3만원
주차 가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로 11
전화 063-272-9992
영업시간 16:00~01:00(연중무휴)
예산 2만원~3만5천원
주차 가능

옛촌막걸리 막걸리

뉴욕타임즈에 전주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된 막걸리집이다. 삼천동과 쌍벽을 이루는 서신동 막걸리 골목에 있다. 내부에는 다녀간 손님들이 남긴 추억의 메모들이 가득하다. 첫 주전자부터, 삼계탕, 족발, 김치전 등 푸짐한 안주가 나온다. 주전자를 흔들면 주문을 받으러 온다. 주전자를 계속 비울수록 비장의 안주들이 줄을 잇는다. 인원이 적을 때는 개별 안주도 주문할 수 있다. 막걸리 한 주전자는 2만원이고 추가 1만5천원이다. 단점이라면 주말에는 초저녁부터 오랫동안 긴 줄을 서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막걸리집

다정집 063-237-1116 가인막걸리 063-282-6455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6
전화 063-284-0793
영업시간 15:00~04:00
예산 1~3만원 주차 가능

전일갑오 가맥

막걸리와 더불어 가맥은 전주만의 독특한 술 문화이다.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준말로 동네 슈퍼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맥주 문화를 말한다. 연탄불로 구워내는 황태포가 수북히 쌓여있는 소박한 슈퍼가 정경다. 전일갑오는 워낙 유명해서 초저녁부터 장사진을 이룬다. 황태포와 같이 나오는 특제 소스는 달달하면서도 매콤해서 한 병 두 병 맥주를 부른다. 가맥의 장점은 가게 가격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다. 손님이 직접 가게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먹고, 안주도 셀프로 가져다 먹는다. 실컷 먹고 마신 후 테이블 위에 놓인 병과 포장지로 계산을 한다. 황태포, 계란말이, 갑오징어가 대표 안주이다. 한옥마을 북쪽 전북대 평생교육원 부근에 있다.

영동슈퍼 가맥

전일슈퍼와 함께 가게 맥주의 양대 산맥이다. 친절이 몸에 밴 주인 부부가 2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전일슈퍼가 황태포와 갑오징어로 승부한다면 이 집의 최고 메뉴는 치킨이다. 청양고추로 맛을 낸 매콤한 치킨은 맥주와 환상 궁합을 이룬다. 노가리도 인기 메뉴이다. 연탄난로에서 구워낸 노가리를 달콤한 가맥장에 찍어 먹는데 그 맛이 환상적이다. 마른안주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닭발 튀김도 인기가 좋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 주인장의 배려다. 통닭, 노라기, 황태포, 닭발이 대표 메뉴이다. 전일갑오 부근에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14
전화 063-283-4997
영업시간 15:00~01:00
(일요일 휴무)
예산 1~3만원
주차 가능

café 전주의 멋진 카페



café 이름 없는 철문 카페 정원이 아름다운
 한옥마을에 있다. 담쟁이 넝쿨과 아름다운 정원이 매력적이다. 한옥마을을 걷다가 마치 호젓한 오솔길에 접어든 느낌이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간판이 없다. 다만 집 앞에 철제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서 철문 카페라고 부른다. 담쟁이 넝쿨이 우거진 벽돌 건물이 주변 한옥과 어우러져 운치 있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모던하면서도 앤티크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룸에서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면 여유로움이 가만히 다가온다. 넓은 룸도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도 좋은 카페이다. 카페에 사는 차우차우 애견이 손님들의 인기를 독차지 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52
 영업시간 09:00~23:00
 예산 1만원 이내 주차 공영주차장

café 교동다원 황차를 마시며

기품 있는 한옥과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이 돋보이는 집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주인 부부가 정성스레 가꾼 집이다. 전통차와 중국차를 취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황차가 유명하다.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므로 황차를 처음 대하는 사람도 쉽게 우려 마실 수 있다. 차와 유기농 과자를 함께 내온다. 차를 마시며 듣는 풍경소리가 청량하다. 오목대 아래쪽에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5
 전화 063-282-7133
 영업시간 11:00~23:00
 예산 1만원 이내 주차 공영주차장



café 투모로우 한옥마을을 눈에 담다

한옥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이다. 실내에서 올려다보면 오목대 숲이 바로 보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하얀 건물에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유리문 밖 테라스와 옥상에도 테이블이 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옥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늦은 저녁이면 어둠이 깊어가는 한옥마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한옥마을의 야경을 간직하려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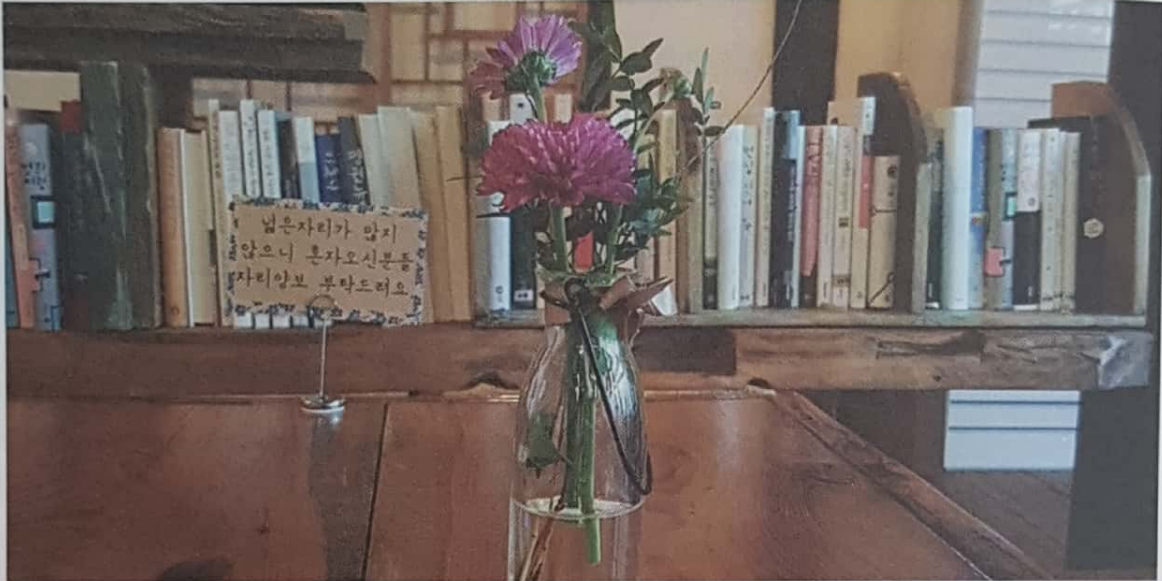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71
전화 063-288-6455 영업시간 11:00~22:00
예산 4천원~1만2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5길 22-6
전화 063-288-2189
영업시간 11:00~23:00
예산 4천5백원~7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café 빈센트반고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객사길에 있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이다. 기형도를 비롯한 시인, 소설가들이 전주에 오면 이곳에 들렀다. 그 시절 카페가 대부분 그랬듯이 지하에 있다. 카페는 7~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입구를 지나 만나게 되는 카페엔 시간의 향기가 배어 있다. 오래된 서가, 시간이 멈춘 괘종시계, 그 시절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은 오디오 등 시간이 만들어 낸 향수 짙은 소품이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 벽면에 꽂혀있는 빈센트 연가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사연을 모아서 묶은 빈센트만의 역사이다. 귀에 익은 올드 팝이 오래된 추억을 살짝 들추어낸다. 페이스북을 검색하면 이 카페에서 진행되는 영화 상영, 라이브 콘서트, 인문학 강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afé 목련을 부탁해 시간이 만든 빈티지 풍경

대들보가 훤히 보이는 호젓한 한옥 카페다. 약간은 애절해 보이는 카페 이름과 한옥에 어울리는 실내 장식이 이 집의 매력이다. 천연 텍스타일과 마른 꽃, 오래된 재봉틀과 카메라, 세월을 품은 책들……. 시간이 만들어낸 빈티지 그 자체의 풍경이다. 테이블을 장식한 앙증맞은 꽃장식도 멋지고 아기자기한 테이블 웨어도 카페와 잘 어울린다. 전통 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소소한 거리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목련꽃이 피고 지는 봄날 찾아가 향기로운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공간이다. 차와 커피 외에 달콤한 초코롤케이크, 촉촉한 당근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갓 볶은 커피콩과 더치커피도 구입할 수 있다. 영화의 거리 남쪽에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3길 46-35

전화 063-282-4004

영업시간 12:00~23:00(월 14:00~23:00, 첫주 화요일 휴무)

예산 4~6천원

주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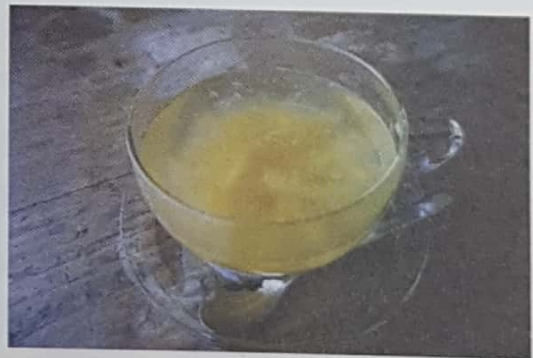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94
전화 063-232-2238 영업시간 10:00~19:00
예산 3~6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café 삼양다방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이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던 다방이 눈길을 끌었다. 56년에 문을 연 대학로의 학림다방이다. 전주 동문거리엔 학림다방보다 4년이나 앞서 문을 연 다방이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령 다방 삼양다방이다. 내부 수리를 거치면서 옛날의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건물주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60~70년대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가구 일부는 옛삼양다방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곳은 암울한 시절, 문인과 영화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커피를 주문하면 옛날식으로 설탕과 프림이 따로 나온다. 옛날 커피나 계란 노른자를 띄운 쌍화차 한잔 마시며 그 시절 향수에 젖어보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전주영화소품창고도 소소한 재미가 있으니 함께 둘러보자. 경기전 뒤편 땡이집 근처에 있다.

café 산책 운치 넘치는 돌담

운치 있는 돌담이 둘러쳐진 한옥 카페이다. 원래는 이태리 레스토랑이었는데 카페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캘리그라피로 쓴 아름다운 간판이 돌담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통유리를 통해 내다보이는 정원 풍경이 마치 숲 속에 앉아 듯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서까래가 드러난 한옥 실내에 들어앉은 빈티지한 목재 가구들이 아늑한 정취를 자아낸다. 여행자들로 붐비는 한옥마을에서 심표를 찍을 만한 공간이다. 햇볕 좋은 봄날이나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을, 반나절쯤 여유로움을 즐겨보면 좋겠다. 생두 구입에서 제조, 유통까지 전문 로스팅 팀이 담당한다. 커피와 음료, 신선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6
전화 063-283-3773
예산 4~8천원
주차 공영주차장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89
전화 063-232-6106 영업시간 09:00~24:00
예산 4~7천원 주차 공용주차장

café 전망 한옥마을에서 전망이 최고

이름처럼 한옥마을에서 최고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카페이다. 전망을 고려해서 모든 공간을 구성했다.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 처마를 맞대고 있는 한옥마을의 지붕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올망졸망한 한옥 너머로 우뚝 솟은 전동 성당의 종탑도 이색적이다. 이곳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나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 없다. 한옥이라는 전통적 공간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섞이고 스며들며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돌아준다. 낮도 좋지만 저녁에 찾으면 더 좋다. 한옥마을의 야경을 구경하며 전주의 멋을 한껏 느껴보길 권한다.

café 카페1723 테라스가 멋진 디저트 카페

아담한 기와집과 테라스가 멋스런 디저트 카페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옆에 있다. 혼잡한 한옥마을을 걷다가 불쑥 만나는 멋진 카페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다양한 커피와 음료는 물론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 아이스크림 위에 인절미와 콩가루를 풍성하게 얹은 인절미 아이스크림은 가벼운 식사로 대신할 수 있다. 플레인요거트에 복분자를 믹스해 상큼한 맛을 살린 복분자요거트도 인기 많은 웰빙 디저트다. 와인이나 맥주도 주문할 수 있다. 시원한 테라스에서 디저트 대신 가볍게 술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길 83
전화 063-288-1723
영업시간 10:00~24:00(일요일 10:00~23:00)
예산 4~7천원(와인 3~5만원)
주차 가능

café 또 다른 카페

블루페코 063-284-2223 더스토리 063-282-9247 공간봄 063-284-3737

